

# 합병 위기 벗어난 장흥군 수협 경영개선 효과 '톡톡'

### 부실채권 정리 등 자구 노력 정상궤도로 돌아서

### 위관 수수료 증가·경비절감 등 작년 10억 흑자

한동안 합병위기에 몰렸던 장흥군 수협이 부실채권과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자구(自求) 노력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섰다.

무분별한 영어자금과 상호금융 대출로 발생한 경영악화에 시달려 2009년에 수협 중앙회로부터 인건 조합과의 합병권고를 받았다.

장흥수협은 당시 부실채권의 규모가 연체로 인한 파산건수가 총 743건 103억원에 달해 회생불능 조합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렸다.

장흥수협은 중앙회 기금 관리위원회로 받은 경영개선자금(무이자) 485억원을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2010년에 30억원, 2011년에 39억원, 2012년에 30억원 등 90여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 2013년말 현재 부실채

권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위해 채권자에 대한 과감하게 농민수산사업자 신용보증 대출금과 상각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은닉 재산을 발굴, 채권확보에 나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장흥수협은 이와 함께 지난해 활어 위관장에서 3억원의 위관수수료와 면세유류와 선박기자재 판매 수수료에서 6억5000만원 등 위관수수

료 증가와 경비절감 등에 힘입어 10억여원 흑자를 내 중앙회가 발표한 90개 조합 가운데 경영개선 8위를 기록했다.

한편 장흥수협은 1본소 2개 지점, 위관장, 42개 어촌계, 조합원 3030명, 임직원 28명 조직에 자산규모는 부채포함 167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혁신도시 민원 행정서비스 빛가람 주민센터 24일 오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지구에 입주하는 이전기관 및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센터가 오는 24일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사진> 총공사비 68억원이 투입된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2719.7㎡) 규모이다. 1층에는 동 사무소와 나주시 금고(농협), 인터넷 카페 등이 들어섰으며, 2층에는 유·시티(uty-city) 통합 운영센터가 배치됐다.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에너지관련 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성격에 맞게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4억원, LED등 설치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4억5000만원을 들였고,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영암 금정면 풍력발전단지 위풍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활성산 정상에 최근 조성된 풍력발전단지(20기)가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풍력발전 단지는 연간 7200만kw의 전력을 생산, 4만여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제공>

### 담양경찰, 건전한 고교 졸업문화 정착 캠페인

담양경찰서는 교육지원청, 자율방범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최근 담양

공고 등 관내 4개 고교 졸업식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

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갑갑한 졸업식 뒤풀이 등의 발생으로 신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지영 서장은 "졸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해 다가올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순창 쌍룡골 왕무덤·쌍룡사지 700년 역사의 비밀 풀린다

### 군, 올 상반기 학술발굴조사

'쌍룡골 왕무덤'의 700년 역사 비밀이 풀린다.

순창군은 "올 상반기에 적성면 운림리 농소마을에 자리한 쌍룡골 왕무덤과 쌍룡사지(址)에 대한 중요 문화유적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소마을은 지난해 12월 전북도 슬로공공체 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송민선)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호남·제주지역 중요 문화유적 학

술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이다. 발굴조사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부담한다.

'왕 무덤' 또는 '왕씨 묘'로 불리는 고분은 지름 10m·높이 약 1.75m 크기로, 고려시대 왕 또는 왕족, 왕씨 성을 가진 이의 무덤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분의 정확한 성격과 조성연대 등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쌍룡사지는 문헌사료에 기록이 없이 정확한 창건과 폐사 연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주변의 '탑선굴'이란 지명과 예전부터 기

와 조각이 일부 발견됐고, 오래된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절터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역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절터의 존재 유무와 조성연대 등이 정확하게 고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 문화재연구소는 유구와 유물 등이 출토될 경우 정밀 발굴조사와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분석을 거쳐 유적의 연대 설정과 정비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출토 유물이 예상외로 많거나 유적의 성격 규명에 장기간 연구가 필



순창 적성면 운림리 소재 쌍룡골 왕무덤과 쌍룡사지에 대한 중요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가 올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순창군 제공>

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 발굴 조사를 통해 쌍룡골 왕 무덤 및 쌍룡사지 유적의 정확한 내용을 고증하고자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향

후 적성면 슬로 공동체사업과 연계, 주변 보존정비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산, 석산리 마에여래좌상, 어은정, 삼진강 등과 연계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시립중앙도서관 개관

### 옛 상동 정수장 부지 신축 4층 규모

정읍 시립 중앙도서관이 내장 상동 옛 상동 정수장 부지에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19일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전북 도서관 관계자, 정읍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중앙 도서관은 4층(연면적 3500㎡) 규모로, 국비 27억원과 도·시비 등 총 80억이 투입됐다.

1층은 동적인 공간으로, 어린이 도서관과 다문화 교실로 구성돼 있고, 2층은 지식정보 공간이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공간 및 디지털 코너, 정기간행물 코너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노인들

을 위한 실버 코너에는 대 활자본 도서와 소파 등을 비치했다.

3층은 취업 준비생 등 이용자 전용공간이다. 성인 열람실과 남녀 학생실, 동아리방, 개인노트북 소지자를 위한 노트북실,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다.

4층은 사무실과 보존 서고·도서 정리실·문화교실 등 사무공간으로 활용된다.

김생기 시장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황새의 비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창군 제공>

### 담양 대나무 공예대전 5월 개최

### 대나무 축제기간에 맞춰

### 조형물 설치 작품 등 집중

담양군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창작품과 미래지향적 공예디자인 발굴을 위해 '제33회 대나무 공예대전'을 개최한다.

대나무 공예대전은 ▲제품(일반인)분야 ▲디자인(대학생)분야 ▲대나무조형물설치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또 양산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활용품, 관광상품, 사무용품, 인테리어 용품 등 다양하게 출품할 수 있다.

원서는 3월 3일부터 4월 15일 까지 교부하며, 4월 14~15일 이틀간 출품신청서와 함께 실물 작품을 담양군 대나무 자연연구소(한국대나무박물관)에 접수하면 된다. 국내외에서 이미 상품화가

됐거나 타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한 작품,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파손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작품 등은 출품이 제한된다.

군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한 작품은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 대나무문화 산업전시장에 전시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출품작의 조형성과 창의성을 비롯해 실용성과 상품화 가능성, 양산성 등 대나무의 산업화가능성 부문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제16회 대나무 축제를 개최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강진군 지진발생시 신속 예측

### 1억3000만원 들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

강진군청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이 설치됐다.

강진군은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들여 군청 재난 종합상황실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설치했다. 또 군청 지하층(1개)과 옥상(2개), 민원동(1개)에도 지진가속도 계측센서가 설치됐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구조물과 기기 등의 시설물이 외부의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지진발생시 재난 종합상황

실에서 신속한 진원 파악과 규모를 측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해 계속된 값을 즉시 소방방재청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송출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로 소방방재청의 지진 계측 통합서버와 연계해 인접도시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강진지역의 지진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단계별 자동방송과 자동경보 기능 등으로 지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단신

### 남원시 '감사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 주관의 감사행정 종합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시는 민원업무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 친절 생활화 등 부패 제로(Zero)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부패 대책을 마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패방지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청렴시스템 운영으로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1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정읍, 주택 주변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

정읍시가 민선5기 특수 시책사업으로 주택 주변 재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여름철 태풍이나 강풍으로 넘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주택 주변 대형 수목을 조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제거작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은 후 산림바이오매스 작업단(6명)을 활용, 상반기 제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주택 주변의 재해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싶은 시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토지 및 지장물(수목·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 장류 기업체 대상 HACCP 공동설명회

순창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동으로 지난 18일 장류사업소에서 관내 장류 기업체를 대상으로 HACCP 등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광주청)는 기업체 환경분석과 공정분석을 통해

HACCP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순창 고추장의 지리적 표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순창군은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군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분야 대상 수상

고창군이 19일 한국산학 협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0회 한국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유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역특화자원인 복분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해 높은 평가

를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 노력으로 기술혁신과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산업계·학계·유관기관·개인 4개 부문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